

numbers 제 79호



주요 내용

2021. 01.08

1. 이번 주 주제 : [코로나 이후 양극화 현상]
 -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주요 언론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정치 지형
 -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의 62% '우울하다'!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불확실성의 시대와 목회데이터연구소

김지철 목사

목회데이터연구소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2020년, 우리는 모두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해로 기억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도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이 힘겨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살아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지독한 감염병 사례를 몸소 경험한 사람은 전무하고, 유사 사례 역시 가장 최근을 꼽는다 해도 100년도 넘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자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또한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쓰며, 함께 힘을 모으려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정치와 이념적 성향으로 모든 걸 쉽게 단죄해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편향적 정보 알고리즘에 함부로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사역은 점점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동안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일반 세상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 한국 교회와 목회 현장에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조사해 의미있는 지표로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게 하였고, 새로운 기준(New Normal)에 맞는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2021년 한 해가 또 다시 시작합니다.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의 요인을 예상한 주체들이 미리 대응에 나서면 실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앞으로 한국 교회가 예상되는 위기 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사회 통계

올해 말 자영업자 25만 가구, 현금 바닥 예상(유동성 위기)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수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낳았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건강의 위기, 생명의 위기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다. 경제의 위기, 생존의 위기까지 안겨 주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모든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뒷걸음질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수입이 줄었다는 의미이다. 그만큼 생활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뜻이다.

생존의 고통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흔히 이야기하듯 ‘재난에는 없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하는데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말 자영업자의 25만 가구가 현금이 바닥나는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것이라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양극화는 경제적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79호는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다룬다. 이를 통해 목회자들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 2021년부터 [넘버즈] 본문 설명문의 종결형을 기존 명사형(‘~함’)을 서술형(‘~하다’)으로 변경함을 알립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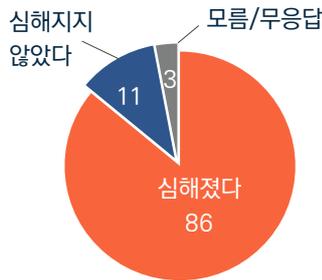
1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평등 ‘심해졌다’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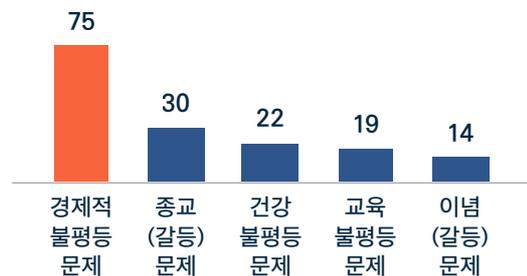
- 우리 국민 중 대다수(86%)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다’(매우+약간)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국민은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경우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로 다른 어떤 것보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가장 높게 지적해, 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불평등 변화 (%)



*자료 출처: KBS, '2021년 신년 여론조사' 2021.01.02.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전화면접조사(안심번호 사용), 2020.12.27.~29)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심해졌다, (별로+전혀) 심해지지 않았다 비율임

[그림]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상위 5위, 중복 응답)



*자료 출처: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교수팀, '코로나19 7차 국민인식조사', 2020.11.05.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조사, 2020.10.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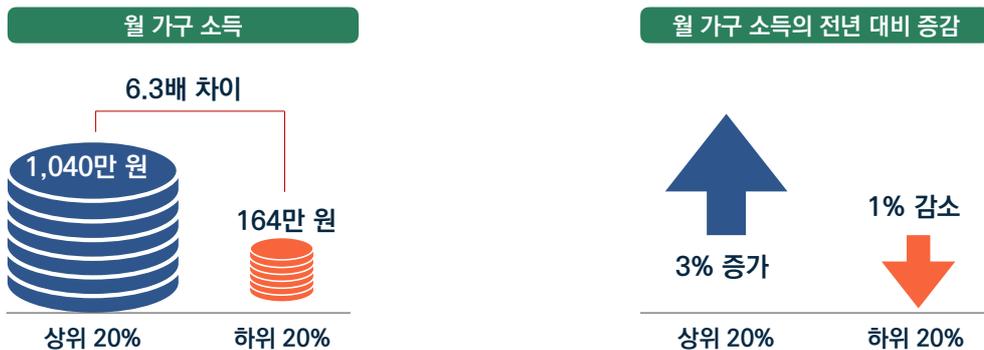
2



코로나 시대, 고소득층 소득 3% 증가, 저소득층 1% 감소!

- 통계청의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월 가구 소득이 하위 20%는 평균 164만 원인데 반해, 상위 20%는 1,040만 원으로 두 그룹 간 6.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구 소득 하위 20%인 경우 작년보다 소득이 1%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3% 증가하여, 코로나 시대에 소득 구간 양 극단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지원금/실업수당/연금 중 이전소득 등 가구 내 모든 소득을 말함)

[그림] 코로나로 인한 소득 양극화 현상(2020년 3/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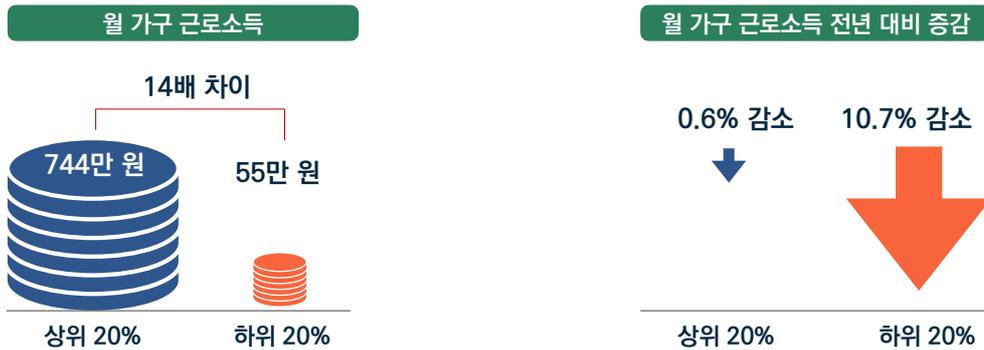


*자료 출처: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0.11.19. (매월 전국 2인 이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7,200가구 조사)

●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상위 20%와 하위 20%간 14배 차이로 더 벌어져!

-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하위 20%는 55만 원, 상위 20%는 744만 원으로 두 그룹 간 14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체 가구 소득보다 격차가 두 배 이상 더 벌어지고 있다.
- 근로소득의 경우, 하위 20%는 전년 대비 10.7%가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0.6%만 줄어들어 하위 20%의 감소폭이 상위 20%보다 무려 18배나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간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근로소득 비교(상위 20% vs 하위 20%)



*자료 출처: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0.11.19. (매월 전국 2인 이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7,200가구 조사)

3



가구 소득 하위 20% 매달 24만 원 적자 생활하고 있어!

- 상위 20%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040만 원, 월 지출 693만원으로 347만 원의 흑자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하위 20% 가구는 월 소득 164만 원, 월 지출 188만 원으로 매달 24만 원의 적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없다면 더욱 적자 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림] 소득과 지출 비교(상위 20% vs 하위 20%)



*자료 출처: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0.11.19. (매월 전국 2인 이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7,200가구 조사)

● 저소득층, 고소득층에 비해 의식주 중 식(食)과 주(住)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 하위 20% 가구의 항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식료품비(24%)와 주거비(14%)가 가장 큰데, 전체 지출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월 가구 소비 지출 구성비(상위 20% vs 하위 20%) (%)



*자료 출처: 통계청,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0.11.19. (매월 전국 2인 이상 일반가구, 농림어가 제외, 7,200가구 조사)
 **기타: 주류/담배, 의료/신발, 가정용품/가사서비스, 통신, 기타 상품/서비스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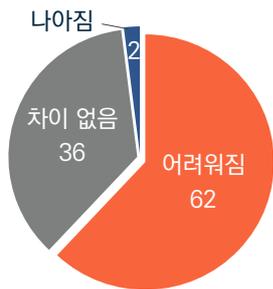
4



저소득층의 대부분, '경제 사정 더 어려워졌다'

- 실제로 국민여론조사(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국민 중 62%가 2019년보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응답하였고, 36%만 '차이없다'고 응답하였다.
-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이하' 층이 8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가장 높았다

[그림] 2019년과 비교한 가구 소득 증감 (%)



[그림] 월 가구 소득별 '어려워졌다' 응답률 (%)



[그림] 직업별 가구 소득 '어려워졌다' 응답률 (%)



*자료 출처: 서울신문, '2021년 새해 여론조사' 2021.01.04.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12명, 전화면접조사, 2020.12.28.-30)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5005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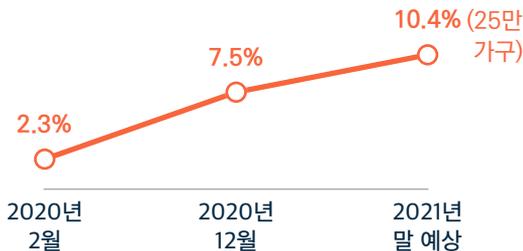
5



올해 말 자영업자의 25만 가구, 유동성 위기(현금 바닥) 예상

- 한국은행이 작년 말에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약 244만 곳에 이르는 자영업 가구 중 유동성 위기를 겪는 가구가 2020년 2월 2.3%에서 2020년 12월 7.5%로 크게 상승하였고, 2021년 말에는 1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약 25만 가구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유동성 위기: 예적금을 깨고 주식 등 금융 자산을 팔아도 먹고 사는 기초생활과 만기 도래하는 차입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함)
- 모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어 사실상 파산하는 자영업 가구 비중도 2020년 2월 0.4%였는데 2021년 말에는 2.2%(53,600가구)로 2년 사이 무려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유동성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 비율



[그림] 파산하는 자영업 가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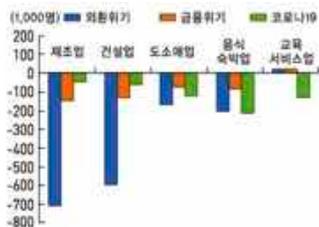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은행, '2020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2020.12.24.(한국경제, 가계 및, 결국 GDP추월.. 내년 자영업자 10% 현금 바닥날 듯' 2020.12.2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2451261>

● 대면 서비스 업종,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타격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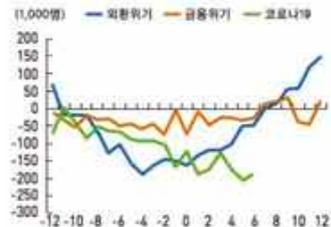
- 외환 위기, 금융 위기 등 이전의 위기 때와 비교해서 코로나 상황을 측정한 결과, 외환 위기 때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지만, 코로나19에서는 대면 서비스업(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것(취업자수 기준)으로 분석됐다.
- 코로나19로 인한 과거 두 번의 위기와 대비되는 가장 큰 차이는 교육서비스업인데, 교육서비스업은 통상적으로 위기가 오더라도 구매력 감소가 극심해지기 전까지는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그림] 주요 위기 시 주요 업종별 영향 비교(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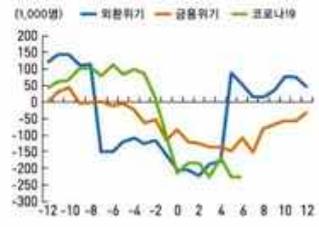
이전의 위기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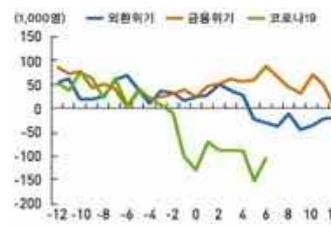
위기 전후 도소매업 추이 비교



위기 전후 음식숙박업 추이 비교



위기 전후 교육서비스업 추이 비교



*자료 출처: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0', 2020.12.1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Note) 가로축의 값은 외환위기는 1998년 8월, 금융위기는 2009년 5월, 코로나19는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이전 또는 이후 월을 의미함

● 업종별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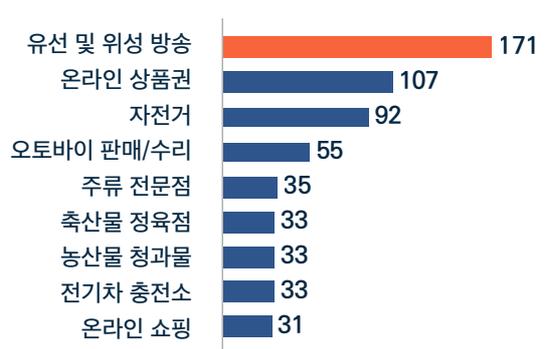
- 매출 감소 상위 업종 : 여행사, 면세점, 영화/공연장, 항공사
- 매출 증가 상위 업종 : 유선/위성방송, 온라인 상품권, 자전거

-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소득 격차를 더 벌리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기도 하지만, 비즈니스 업종간에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30개 업종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매출(1~10월)이 2019년보다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여행업과 레저/문화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매출이 증가한 업종으로 자전거, 온라인 쇼핑 그리고 식재료 관련 업종이 상위권에 랭크됐다.

[그림] 매출 감소 상위 업종(상위 9위) (%)



[그림] 매출 증가 상위 업종(상위 9위) (%)



*자료 출처 :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II', 2020.12. (신용 및 체크카드 매출데이터와 무승인 매입데이터 활용해 약 230개 업종 분석)

** 2019년 1~10월 누계와 2020년 1~10월 매출 누계를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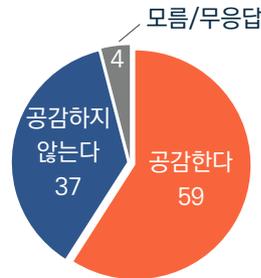
●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필요하다' 79%

-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79%)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임대료 지원에 대해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 제한 기간에 임대료를 내지 않거나 절반까지만 임대료를 내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긍정 평가'(59%)가 '부정 평가'(37%)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인다.

[그림]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에 대한 필요성** (%)



[그림] 임대료 멈춤법에 대한 공감도** (%)



*자료 출처 : KBS, '2021년 신년 여론조사' 2021.01.02.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전화면접조사, 안심번호 사용, 2020.12.27.-29)

** 4점 척도 질문으로 (매우+약간), (별로+전혀)를 합한 비율임

6



교회 역시 양극화 추세 피하기 어려워!

과거 9년간 소형 교회와 초대형 교회 수 비중 양극단 모두 증가

- 예장통합교단의 교세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교회 규모의 변동 사항을 살펴보면, 50명 이하 소형 교회가 2010년 전체 교회의 39.3%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9년은 50.3%로 크게 증가하여, 해가 갈수록 소형 교회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 50명 이하 소형 교회 수가 지난 9년간 43.5%나 증가한 반면, 51명 이상 교회는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양극화라기보다는 소형 교회 중심의 지나친 편중화 현상으로 봐야 할 것 같다.

[표] 교회 규모별 교회 수 증감 추이(2010년~2019년, 예장통합교단)

교회 규모	2010년		2019년		교회 수 증감율
	교회 수	비중(%)	교회 수	비중(%)	
50명 이하	3,211	39.3%	4,608	50.3%	43.5%
51~100명	1,564	19.2%	1,508	16.5%	-3.6%
101~300명	1,846	22.6%	1,743	19.0%	-5.6%
301~1000명	1,007	12.3%	845	9.2%	-16.1%
1001명 이상	537	6.6%	451	4.9%	-16.0%
합계	8,165	100.0%	9,155	100.0%	12.1%

*자료 출처 :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2010~2019년)

- 그러나 교인 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교인 중에서 100명 이하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 6.8%에서 2019년 8.9%로 2.1%p 늘어났지만, 10,001명 이상 초대형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20.6%에서 2019년 21.0%로 오히려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체적으로 교인수는 감소(-12%)하고 있는 가운데, 교인들이 초대형 교회로 수평 이동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이다.

[표] 교인 수 비중 변화 추이(2010년~2019년, 예장통합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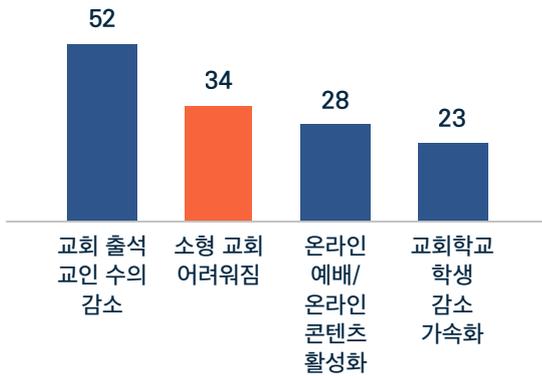
교회 규모	2010년		2019년		비중 증감
	교인수	비중(%)	교인수	비중(%)	
100명 이하	195,323	6.8%	223,757	8.9%	2.1%p
101~300명	318,789	11.2%	300,703	12.0%	0.8%p
301~1,000명	534,358	18.7%	453,797	18.1%	-0.6%p
1,001~3,000명	653,016	22.9%	551,388	22.0%	-0.9%p
3,001~5,000명	309,190	10.8%	230,931	9.2%	-1.6%p
5,001~10,000명	254,496	8.9%	220,899	8.8%	-0.1%p
10,001명 이상	589,149	20.6%	525,510	21.0%	0.4%p
합계	2,854,321	100.0%	2,506,985	100.0%	

*자료 출처 : 예장통합교단 교세통계자료(2010~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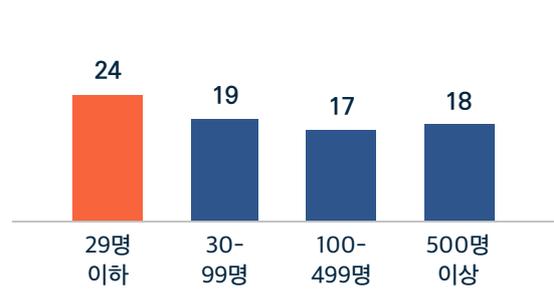
● 목회자들은 코로나 이후 소형 교회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고, 실제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출석 교인 감소 예상을 가장 크게 보고 있음

- 목회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예상되는 한국 교회 변화에 대해 ‘출석 교인 수의 감소’를 1위, ‘소형 교회 어려움’을 2위로 각각 지적하고 있어, 소형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으로 출석 교인 수가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목회자들에게 얼마나 감소할 것인지 예상 감소율을 질문했는데, 29명 이하 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응답했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한국 교회 변화 (상위 4위, 중복 응답) (%)



[그림] 출석 교인 수 감소 예상 비율(교인 수 감소 예상 목회자) (%)



*자료 출처 : 예장통합총회 '포스트 코로나19 조사', 2020.06.15.(예장통합 소속 교회 담임 목사, 1,135명, 모바일 조사, 2020.05.28-06.01)



시사점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했지만, 또 다른 위협은 경제 위기이다.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도 위축이 되고 집합 금지 등으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모든 직종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실제로 한국은행은 올해 말이면 25만 자영업 가구가 대출을 갚을 능력이 안 되고, 현금이 없어 기초생활도 못할 정도의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 위기는 양극화를 초래했다. 통계청의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 하위 20%인 경우 작년보다 소득이 1% 줄어든 반면, 상위 20% 가구는 3% 증가하여,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11월 초 발표된 신년여론조사(서울신문)에서도 월 소득 200만원 이하에서 '어려워졌다'는 응답률이 81%였는데 601만 원 이상에서는 39%만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경제적 위기에 대한 체감도도 소득별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번째는 업종 간 양극화이다.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는 의도치 않게 산업구조를 바꾸었는데, 비대면의 재택률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업종, 즉 유선 및 위성 방송, 온라인 상품권, 자전거 그리고 농축산물과 같은 식료품 업종은 매출이 늘었다. 반면에 여행업, 면세점, 영화/공연업, 항공사 등과 같은 대면 활동 중심의 업종은 매출이 급감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닥치지 않았다. 부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지탱할 여력이 있지만 저소득 계층은 그럴 힘이 없다. 이들은 곧 생존의 위기로 몰리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는 대내적으로는 먼저 교회 내에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움으로써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번 넘버즈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저소득층이 재난 시대에는 더 어려워지는데, 교회에서 저소득층 교인들을 위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우들 가운데 임대업을 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임대료 감면에 동참해서 교회가 사회적 연대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요즘처럼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때에 필요한 일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생존의 위기는 교회에도 그대로 닥친다는 것이다.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교인들의 수입의 감소하면서 현금이 줄어들어서 재정이 어려운 교회들이 많다. 소형 교회 가운데는 교회 임대료도 못 내고 가뜩이나 적은 목회자 사례비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다. 중대형 교회 가운데는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교회 교직원들 감축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즉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 직원도 이 위기 상황에 들어와 있다.

따라서 개 교회 차원에서는 불요불급한 지출, 과시성 지출 등을 찾아내서 이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우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노회와 총회는 교회를 돕는 기구인데, 존폐의 위기에 처한 소형 교회 등을 돕기 위한 방법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형편이 나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개교회주의가 극심한 이기적 풍토를 이겨내고 교회가 진정한 공교회로서 모습을 갖추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주요 언론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정치 지형
2.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의 62% '우울하다'!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주요 언론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2021년 정치 지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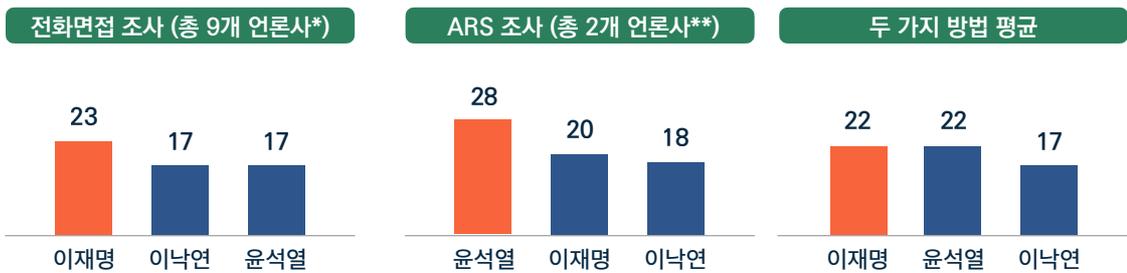


신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대선 후보 지지도 평균(전화면접 조사 기준), '이재명' 23%, '이낙연' 17%, '윤석열' 17%

- 2021년은 여의도 정치의 계절이 될 것 같다.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고,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11월에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각각 예정돼 있다. 내년 2022년 3월에는 대선이, 6월에는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은 코로나 와중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의 계절을 맞게 된다.
- 새해가 되면서 11개의 주요 언론사에서 대선과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본 연구소에서는 발표된 조사 결과들을 합산해서 평균값을 산출해 보았는데, 전화면접 조사 방법에서는 '이재명'(현 경기도지사)이, ARS 조사 방법에서는 '윤석열'(현 검찰총장)이 각각 1위를 차지했다.
- 특이한 것은 조사 방법에 따라 1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조사 방법을 합친 결과는 '이재명'과 '윤석열'이 각각 22%로 동률로 나타났다.

[그림] 내년 대선 후보 지지도(주요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평균)

(%)



*자료 출처 : 전화면접조사 : MBC, KBS, SBS,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9개 언론사(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2020년 12월말 조사)

** 자료 출처 : ARS조사 : YTN, 뉴스1(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2020년 12월말 조사)

조사 방법에 따른 후보 지지도 결과의 상이함에 대한 해설

언론에 발표되는 선거 여론조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조사원이 직접 응답자에게 전화해서 응답을 받은 전화면접방식과 설문을 사전에 미리 녹음해서 녹음된 목소리로 질문하는 자동응답방식(ARS)이다. 현재 매주 정치 지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사 기관은 두 군데인데, 한군데는 한국갤럽으로 이 조사는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하고, 다른 한군데는 리얼미터로 자동응답방식(ARS)으로 진행하고 있다.

두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률의 차이이다. 전화면접방식은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진행하므로 응답률이 ARS 방식보다 현저하게 높다. 이번 신년 여론조사의 경우 전화면접 조사의 응답률은 12~29% 정도 되며, ARS는 3~5% 정도 된다. 따라서 응답률이 4~6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응답률이 높아지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언론사들이 이번 신년 여론조사처럼 중요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둘째, 조사 비용의 차이이다. 조사 비용은 전화면접 방식이 사람을 직접 활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ARS방식 보다 훨씬 많이 든다. 전화면접 조사가 ARS조사 보다 대체로 6~8배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응답자의 성향이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응답률이 10%라고 가정하면 응답한 10%가 응답하지 않은 90%의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치 조사의 경우 정치적인 관심도가 낮은 사람은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날이 되면 큰 선거 일수록 이들도 투표장에 간다. 따라서 선거일이 한참 남아있는 기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의 경우 정치적인 관심도가 떨어지는 국민들의 의견을 여론조사에 반영하기 어렵다. 여기까지는 두 방법 모두 해당되는 한계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정치 조사의 경우 응답률이 낮을수록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사람만 조사에 들어오게 된다. ARS 방식은 응답률이 훨씬 낮으므로 정치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보수 진보 양 극단의 응답자만 들어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ARS 방식에서 윤석열 지지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조사원을 거치지 않은 ARS조사에서는 반 문재인 성향의 응답자들이 대거 윤석열 지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중앙일보, 2021.01.03.).이상과 같이 두 조사 방법의 상이한 차이점 때문에 조사결과가 달리 나타난 것이다.

민심은 상황에 따라 급변할 수 있기에 여론조사는 마치 그 시점에서의 ‘스냅사진’과 같다. 여론조사는 대중의 의견을 알아보는 도구이기에 독자는 현 상황에 대한 참고 자료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온도계는 기온을 재는 도구일 뿐인데 마치 온도계가 기온을 결정하며, 현미경은 박테리아를 보는 도구인데 마치 현미경이 박테리아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독자들은 앞으로 쏟아져 나올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결정론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단지 ‘스냅사진’ 정도로 이용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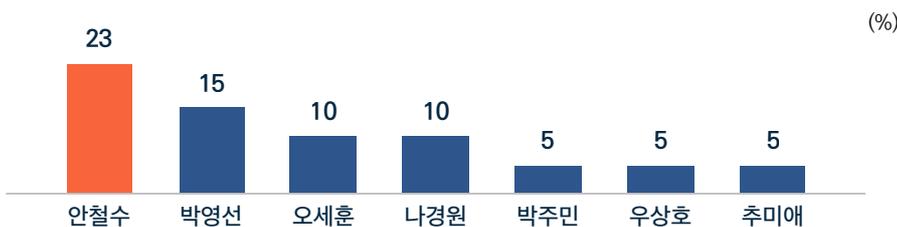
1-1



서울시장 선거 D-3개월 현재 ‘안철수’가 1위!

- 주요 언론 중 4개 언론사가 신년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각각의 결과를 합해 평균값을 구해 본 결과, ‘안철수’(현 국민의당 대표)가 23%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다음으로 ‘박영선’(1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훈’(10%, 전 서울시장), ‘나경원’(10%, 전 의원) 등이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서울 시장 후보 지지도(주요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평균, 전화면접 조사, 상위 7명)



*자료 출처 : SBS, 조선일보, 동아일보 3개 언론사(서울시,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2020년 12월말 조사)
주) 여기서는 ARS조사는 제외하고 전화면접 조사 결과만 사용하였음

● 부산시장 선거, 국민의힘 '박형준'이 2위와 더블스코어로 1위!

- 2개 언론사가 실시한 신년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조사를 실시했는데 각각의 결과를 합해 평균값을 구해 본 결과, 박형준(동아대 교수)이 23%로 2위와 두 배 차이로 앞서고 있으며, 다음으로 김영춘(12%,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언주(9%, 전 의원)가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부산 시장 후보 지지도(주요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평균, 전화면접 조사, 상위 3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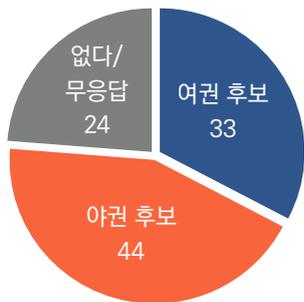


*자료 출처 : 부산MBC/KBS부산, 조선일보(부산시,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800~1000명, 2020년 12월말~1월초 조사)
 주) 여기서는 ARS조사는 제외하고 전화면접 조사 결과만 사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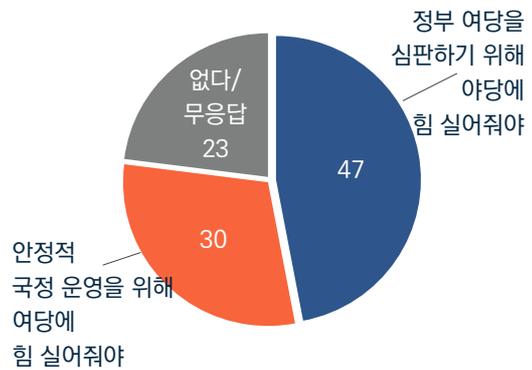
● 서울, 부산 모두 정권 심판 위해 '야권 후보' 투표 의향 높아

- 서울 시민에게 '여권 후보'와 '야권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냐고 질문한 결과, '야권 후보' 44%, '여권 후보' 33%로 '야권 후보' 투표 의향률이 더 높게 나타나,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시민의 정서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 선거일 D-3개월 현재, 현 정서로는 서울/부산 모두 여당 열세, 야당 우세 형국을 보였다.

[그림] 서울시장 선거에서 투표 의향 진영* (%)



[그림] 부산시장 선거 의미** (%)



*자료 출처 : 자료출처 : SBS(서울시,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801명, 2020.12.31.~2021.01.01)
 ** 자료출처 : 부산MBC/KBS부산, (부산시,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2021.01.02-03)

2020년 말 코로나 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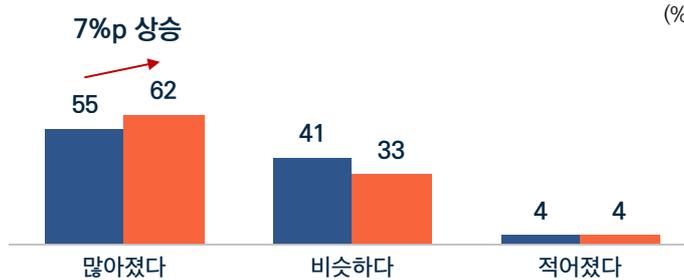
2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상승, 전국민의 62% '우울하다'!

- KBS가 2021년 신년 여론조사(2020년 12월말 실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코로나블루)을 조사 했는데, 코로나19 이후 우울감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62%로 나타났는데, 이는 9월 추석 때 조사한 55% 보다도 7%p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코로나블루(우울감) 변화(2020. 9월* vs 12월**)



*자료 출처: KBS, '2020 추석 여론조사', 2020.10.02.(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 전화면접, 2020.09.26~28)

**자료 출처: KBS, '2021 신년 여론조사', 2021.01.02.(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2021.12.27.-29)

*** '많아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 '적어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의 수치임

● 우울감 증가, '주부' 76%, '자영업자' 72% 등에서 높았다!

-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인식은 '여성'(68%)이 남성(55%)보다 높았고, '주부'(76%)와 '자영업'(72%)에서 높게 나타나 이동 제한에 따라 집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가정 내 스트레스 증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이후 '우울감 많아졌다' 응답률(성별, 직업별)



*자료출처: KBS, '2021 신년 여론조사', 2021.01.02.(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2021.12.2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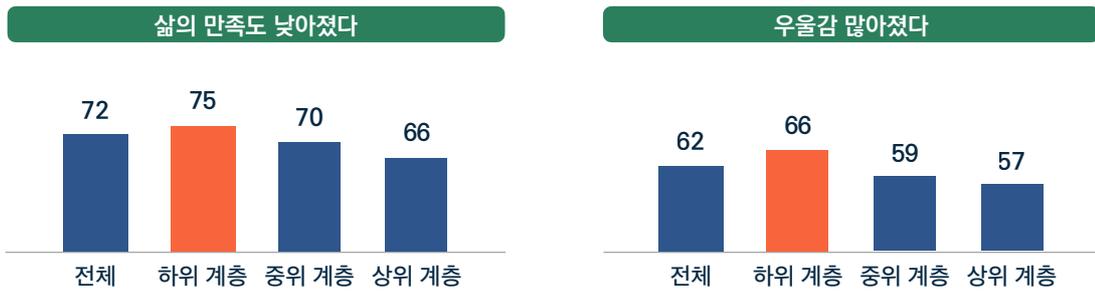
** '많아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 수치임

●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하위 계층’에서 ‘삶의 만족도’ 낮아지고, ‘우울감’ 높아졌다!

- 거리두기 강도가 상승하면서 삶의 위축에 따른 ‘우울감’ 증가는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특히 자신을 ‘하위 계층’이라고 인식하는 층의 75%가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응답했다. ‘삶의 만족도’와 ‘우울감’은 경제적으로 하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는데 이들 계층에 한 세심한 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계층 간 삶의 변화

(%)



*자료출처: KBS, '2021 신년 여론조사', 2021.01.02.(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조사, 2021.12.27.-29)

** '낮아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와 '많아졌다'는 '매우+그런 편이다' 수치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사
회
일
반

[1인 가구가 39%로 최다... 3인 이상 가구 앞질러](#)

조선일보_2021.01.04.

[기초개념도 모르는 최하등급 학생 14.8%... 10년새 2배](#)

조선일보_2021.01.06.

[코로나 백수 될 바에야...`대학교 5학년` 26% 늘었다](#)

매일경제_2021.01.05.

[혼자하는 헬스보다 테니스 등 여럿이 하는 운동이 기대 수명 더 늘려줘](#)

조선일보_2021.01.07.

[비트코인 무서운 상승세...3만3000달러도 돌파](#)

조선일보_2021.01.03.

코
로
나
1
9

["축의금 80% 카톡으로" "장례식장 식사 조문객 70% 감소"](#)

중앙일보_2021.01.04.

["코로나시대 소득별 교육 격차, 인적자본 상실 퍼펙트스톰 올것"](#)

매일경제_2021.01.04.

[코로나에 팍팍해진 삶...술·담배 소비 역대 최대](#)

연합뉴스_2021.01.05.

[코로나19로 배달시장 고성장...바라고 "작년 배달 134% 증가"](#)

연합뉴스_2021.01.05.

기
타
/
트
렌
드

["내가 노력해도 환경 파괴" 기후 우울에 빠진 소비자들](#)

한국일보_2021.01.05.

["北, 지난달 중국 수출 겨우 263만원...화장품·비누 3품목뿐"](#)

노컷뉴스_2020.12.26.

[대세가 된 온라인 콘서트](#)

조선일보_2021.01.03.

이슈 큐레이션

[세계 석학들이 보는 포스트 코로나 7가지 키워드](#)

조선일보_2021.01.02.



주요 언론 신년 여론 조사 모음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KBS 신년 여론조사\]“코로나 블루 심해졌다” 61.9%…자영업자·주부 더 ‘취약’](#)

[\[KBS 신년 여론조사\] 코로나로 달라진 삶…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KBS 신년 여론조사\]차기 대선과 보궐선거, 국정지지도는?](#)

[\[MBC 여론조사\] '백신 대응' 팽팽한 민심…공수처 "검찰 개혁에 도움"](#)

[\[MBC 여론조사\] 차기 대권 '3강'…이재명·윤석열·이낙연 초박빙](#)

[\[sbs 여론조사\] "2~3월 접종, 잘된 일" 56.1% - "잘못한 일" 41.7%](#)

[\[sbs 여론조사\] "보궐선거, 야권 승리" 39.2% - "여당 승리" 24.3%](#)

[\[동아일보\] 최우선 외교과제… “한미동맹 강화” 50.2% “남북관계 복원” 17.5%](#)

[\[동아일보\] “개헌 찬성” 57.9% “반대” 28.7% 응답](#)

[\[동아일보\] 이재명-이낙연-윤석열 ‘대선 3강’ 굳어가 - 타언론 비교](#)

[\[동아일보\] “文정부 부동산정책 잘못” 70%육박… “집값 올해도 오를것” 68%](#)

[\[동아일보\] 서울시장 선거 지지율… 안철수 24.2% 박영선 17.5% 나경원 14.5%](#)

[\[동아일보\] 백신 접종 “안전성 검증이후” 58.8% - “빨리 시작해야” 39.9%](#)

[\[동아일보\] 이재명 24.6% 이낙연 19.1% 윤석열 18.2%](#)

[\[동아일보\] 서울 민심, “정부여당 심판” 46.2% vs “안정적 국정운영” 31.3%](#)

[\[동아일보\] “윤석열 복귀, 잘됐다” 47.9% - “잘못됐다” 42.3%](#)

[\[동아일보\] 안철수 44.6 vs 박영선 38.4%… 박영선 42.1 vs 나경원 38%](#)

[\[리얼미터+YTN\]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 30.4%로 1위…이재명 20.3%·이낙연 15%](#)

[\[갤럽\] 2021년 새해 전망, 주관적 행복감 - Gallup International 다국가 비교 조사](#)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재)기독교선교햇불,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 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 CBMC 행복한지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벽산,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관상,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재찬, 박준상, 박진규,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정호, 안태근, 엄정석, 여삼열,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영선, 이완중,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우성, 장형철, 전치영, 정종섭, 정준,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헌,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 홍혜숙(가나다순)

신규 후원 | 꿈마을엘림교회, 하나마을교회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1-68호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기독교인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기독교인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바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함께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기독교인 의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교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기독교인,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실업률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중 소외감을 느낀다'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현황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식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 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대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 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제 57호 |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한국인, '뉴스 신뢰도' 세계 40개국 중 최하위,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는 5명 중 1명 꼴(19%)
- 제 58호 | [미래 종교] 2070년 이후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 종교 1위로 부상! | 미국, 매주 교회 가던 개신교인 3명 중 1명,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 간다'
- 제 59호 | '국민 절반(48%), 코로나 블루 상태에 놓여 있다!' | 밀레니얼 세대, '집 사기 위해 돈 모은다' 61%, 원격 수업, '학습 부진아 지도 안 된다' '초등 교사' 73%, '중·고등 교사' 75%
- 제 60호 | 밀레니얼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 핵심은 취향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실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요인 분석
- 제 61호 |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같은' | 코로나19 이후, '체중 증가했다'
- 제 62호 | 한국인의 환경 문제 인식 '과거보다 현재 더 나빠졌고,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 | 올해 2사분기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 최저!'
- 제 63호 | 대학생 거의 절반인 44%, '생활 속 무력감' 느껴 | 정당 지지도 기반 유권자 분석,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미래통합당)'보다 핵심 지지층이 더 많아!
- 제 64호 | 한국인의 일상생활, 코로나19 이전 대비 44% 수준으로 위축된 삶 살고 있다! | 올 추석에 어른께 가장 듣고 싶은 말, '추석에 안 와도 된다' 46% | '동영상 플랫폼' 이용률, '10대' 청소년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다(87%)
- 제 65호 | 택배 노동자의 하루, '12시간 노동, 점심시간 12분, 2분 50초마다 1개 물량 처리' | 한국, 8월말 기준 OECD 국가 중 경제와 코로나19 방역 양쪽 모두 1위 |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 1위, 경제적 효과로 1조 7천억 원 규모! | 우리 국민 추석, '부담/염려 더 큼' 60%
- 제 66호 | 비대면 시대, 교회의 공동체성은 소그룹 활동에 달려있다! | 한국인의 91%, '현재 고민거리 갖고 있다!'
- 제 67호 |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차지 | 코로나19 우울증 진단, 20대 여성 전년 대비 38% 증가, 코로나19 이후 화상회의 앱 '줌'(ZOOM) 이용자, 9월 한 달간 707 만 명으로 역대 최대!
- 제 68호 | 트로트 전성시대! | 코로나19 이후 한국인 생활의 변화 '체중 증가/운동량 감소',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유튜브' 1위

역대 [넘버즈] 주요 내용

69호-78호

- 제 69호 | 교회 출석자 중 코로나19 이후, '아예 주일 예배 드리지 않은 개신교인' 증가세! | 전 세계 국민의 86%, 세계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세상으로 크게 변화하기를 원해! | 미국인,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역대 가장 높아!
- 제 70호 | 한국 개신교인의 '공교회 인지도', 19%만 공교회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 | 우리나라 임상 의사수, 인구 1,000명 당 2.4명으로 OECD 31개국 중 29로 최 하위권
- 제 71호 | 대한민국 불법 도박, 연간 81.5조 원의 대규모로 은밀히 행해지고 있어! | 2020년 신규 주식 계좌 연령, '2030세대' 57% 차지!
- 제 72호 | 남성 육아,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89%) '필요하다' | '코로나 불안도' 61%,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의 불안감 보임
- 제 73호 | 우리 국민, '비혼 출산 찬성' 31%, '비혼 동거 찬성' 60% | 올해 한국인, 작년보다 '신체-정신 건강 모두 나빠졌다!' | 조직의 리더로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 1위, '책임감' 54%
- 제 74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5호 | 한국인의 웰다잉(Well Dying), '나를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죽고 싶다' 85% | 종교를 믿는 긍정적 효과, '긍정적 감정, 윤리적 행동, 올바른 가치관' | 서울시 1인 가구, 50대 이후 행복도 급격하게 떨어짐
- 제 76호 | 국내 기업 2개 중 1개 재택 근무 실시 → '코로나19가 기업 문화를 바꾼다! |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 83.3세, 전년 대비 0.6세 증가 | 한국인 45세 때 1,484만 원으로 최대 흑자, 59세부터 적자 인생으로 전환
- 제 77호 | 코로나19 시대, 기부 금액 감소 기부 중단율 높아져! | 코로나 크리스마스, 미국인 4명 중 1명 '작년보다 성탄절 예배 참석 줄일 것' | 성인 남녀 10명 중 9명, '송년 모임 취소했다'
- 제 78호 | 2020년 넘버즈 Top 8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햇불회